

지난해 9월 발족된 '데이터품질관리포럼'이 창립 3개월여 만에 국내 주요 금융사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모임으로 발돋움했다. 특히 KT, 우리금융, 신한은행 등과 같은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포럼에 적극 참여해 활발히 활동하면서 관련 업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데이터품질관리포럼 이정우 회장(연세대 교수)을 만나 포럼의 활동 목표와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정우 회장과과의 일문일답.

최근 데이터 품질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은 이미 오랜 전부터 강조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품질 데이터 문제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호적정보시스템 주민등록번호의 약10%가 잘못된 데이터임이 밝혀졌고, 국내 금융회사 고객 계좌의 100개 중 1개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돼 있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호적정보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면 일반 국민들은 대출이나 구직, 혼인 신고 등에 필요한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며, 잘못된 금융정보는 영통한 사람에게 이자 소득을 과세하는 등 적잖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립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보급함으로써 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와 관련 산업계 실무자, 학계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2005년도 주요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작년 9월 창립총회 당시만 해도 50여명에 불과하던 포럼 회원이 3개월여 만에 10배나 증가한 500여명에 달해, 현재 산업계에서 데이터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원들이 실무에서 참고할만한 데이터 품질관리 사례나 방법론이 부족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CIO나 CEO들이 아직까지 데이터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포럼 사업 계획은 이와 같은 IT 실무자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립 했습니다.

우선 회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통해 함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개최하고 있는 장기세미나를 보다 활성화시킬 것이며, CEO·CIO를 대상으로 하는 조찬 세미나와 강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 내에 분야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데이터 품질관리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보급할 것입니다.

저품질 데이터 문제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

“데이터 품질 문제는 IT 부서만의 책임이 아니라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사용하는 현업 담당자, 그리고 CIO·CEO 모두의 책임이며,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이나 기관 모든 구성원의 전사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클 신중훈 기자

최근 거트너 그룹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축된 DW와 CRM 시스템의 50% 이상은 데이터 품질 문제로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하며, 미국의 경우에는 저품질 데이터로 인해 생기는 손실 비용이 한해 GDP의 15%인 1.5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스템이 통합 가속화되고 유비쿼터스 환경을 진행됨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점점 더 표면화될 것입니다. 이제 데이터 품질은 개인이나 일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인식돼야 합니다.

포럼의 활동 목적은 무엇입니까?

IT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현업 담당자나 CIO로부터 데이터 품질에 대한 불평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오류는 어느 일개인이나 한개 부서의 책임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 품질 문제는 IT 부서만의 책임이 아니라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사용하는 현업 담당자, 그리고 CIO·CEO 모두의 책임이며,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이나 기관 모든 구성원의 전사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품질관리포럼은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을 확

개발될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품질관리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게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기업과 기관에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이 회장은 인터뷰를 마치며 “옛날엔 포럼이 산업에 영향력을 가지려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데이터품질관리포럼은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문화 조성이라는 본연의 목표로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데이터는 기관이나 기업의 자산을 넘어 생존의 필수 수단이 되고 있는 만큼, 기업·대학·정부의 공동 노력을 통해 데이터 품질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데이터품질관리포럼에는 데이터 품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홈페이지(www.dbq.or.kr/forum)를 통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포럼 사무국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

데이터품질관리포럼 회장

이정우

